

보수적 검토와 진보적 선택

개인이든 기업이든 위기가 찾아오면 어김없이 선택의 고뇌를 하기 마련이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일이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 기업의 CEO가 내리는 결정은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할 때가 많다. 그래서 많은 CEO들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은 좀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결정을 요구한다.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급해서 서야 선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할까 말까 망설이면 한만큼 이득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뜻은 갈림길의 선택에서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고 망설여서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라는 것이다.

〈성공하는 벤처기업의 10가지 철칙〉중에도 ‘과감한 의사결정과 불굴의 투지, 그리고 신속한 전략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다. 벤처의 경우는 특히 기회가 왔다 싶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하며, 경영진이 직원 앞에서 우유부단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성급한 판단으로 후회와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사숙고해서 위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배우는 자세야말로 더욱 중요하다.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선택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기업은 늘 제자리일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사업에 집중하면서 미래의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게 기업의 입장이다.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는 주변에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해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는 의사결정자의 책임이다. 검토는 보수적으로 하되 선택은 진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CEO가 내리는 전략적 방향성의 설정은 한 기업의 근간이 되고 모든 기업 활동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향성이 잘못 났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카멜레온 같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덕목이다. **KOVN**

현재의 사업에 집중하면서 미래의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게 기업의 입장이다.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는 주변에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해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는 의사결정자의 책임이다. 검토는 보수적으로 하되 선택은 진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